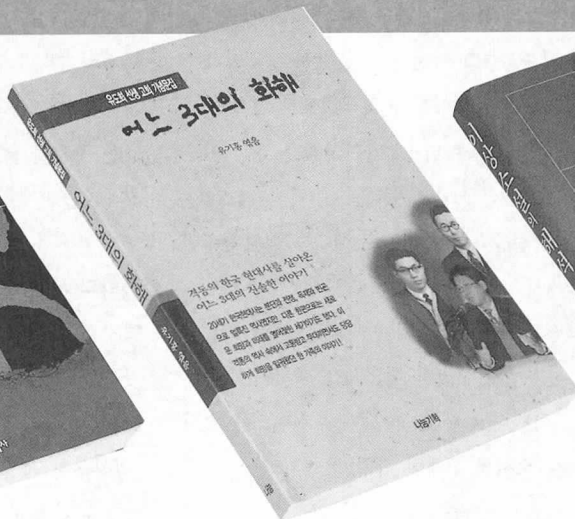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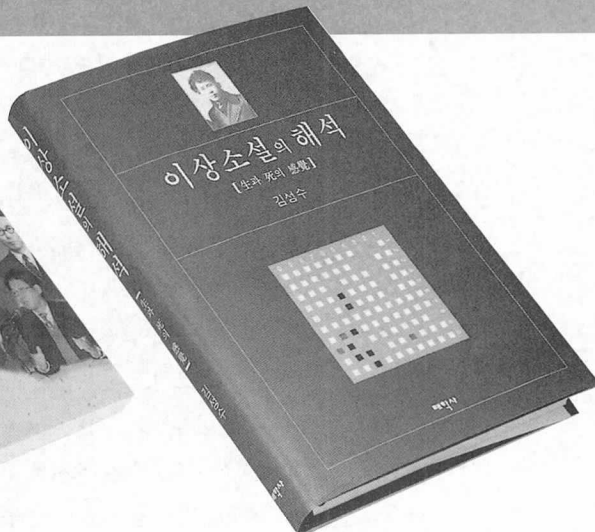


지식산업사/A5신/286면/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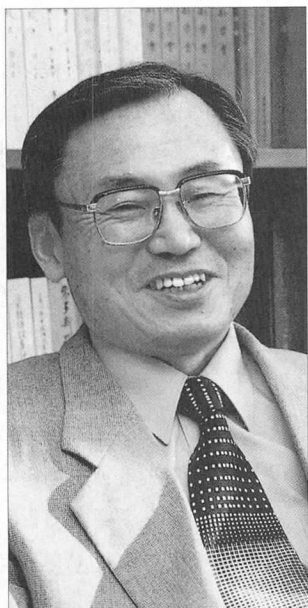


나눔기획/A5신/220면/비매품



태학사/A5신/364면/15,000원

## 일반인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중국 고대철학 입문서'



“중국 고대철학은 우리 문화와 사상을 이루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알아야만 서양문화를 받아들여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철학의 이해》 펴낸 이강수 교수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은 중국 고대철학을 재미있게 풀이한 입문서가 나왔다. 이강수 교수(59, 연세대 철학과)가 유가·도가 등 중국 고대철학 6개 학파의 사상을 정리한 《중국 고대철학의 이해》를 펴낸 것.

“흔히 해방 이후 우리 문화를 ‘꽃꽂이 문화’라고 합니다. 서양의 꽃이 아름다워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꽃은 금방 시들고 맙니다. 중국 고대철학은 우리 문화와 사상을 이루는 뿌리죠.”

우리 전통의 문화와 사상을 알려면 중국 고대철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금,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알아야만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도 차별·감식 기능이 생기고,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강단에 서다 보니 한글세대인 학생들이 읽을 만한, 마땅한 교재가 드물어 입문서를 쓰게 됐다. 하지만 고증에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고대와 가까운 한당시대의 문헌에서 자료를 뽑았고 명가·목가·음양오행 철학의 경우 일일이 전공자의 검토를 거쳤다.

이 책은 잘 알려진 공자와 노장 사상을 비롯해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 논쟁, 고대 중국의 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는 명가 철학,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돼온 목가와 후기 목가의 논변 사상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흔히 역술로 알기 쉬운 음양가 철학의 사상적 의미도 밝혔다.

“공동체사상을 이해하려면 유가사상을, 개인의 정신세계를 깊이 탐구하려면 도가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서양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명가·목가·순자의 철학이 좋은 지적 체험이 될 겁니다.”

이교수는 요즘 학생들뿐 아니라 인문사회학 연구자들에게도 중국 고대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철학이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된다는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셈이다.

— 김정은 기자

## 화해의 미덕을 일깨워주는 가족 이야기

현대사의 질곡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었기에 3대에 걸쳐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한 가족이 마침내 화해했다. 그 힘든 물꼬를 튼 사람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사무처장 유기홍씨(41). 그는 아



“역사의 수레바퀴는 늦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모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족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3대의 화해》  
엮은 유기홍씨

버지의 고회를 맞아 기념문집 《어느 3대의 화해》(나눔기획)를 펴내 뒤늦게나마 부자간의 정을 확인했다.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보낸 후 77년 대학에 들어갔는데, 군사통치의 말기 행태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더군요. 동아리에 가입하고, 사회문제를 공부하며 운동을 시작했죠.”

학내에서 학생회 부활을 추진하던 그는 3학년 말기에 10·26 사태가 발발하자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5·17사건에 연루돼 한달 동안 모진 고문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무기정학을 당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그는 또다시 시위를 주도했다.

“다시 수배된 동안 은행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강제 해직을 당했습니다. 1년 뒤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무척 괴로웠습니다.”

괴로움은 그쯤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서에 끌려간 그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과 부딪혔다. 신문하는 경찰의 입에서 “할아버지를 언제 만났느냐”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 말은 곧 6·25때 납북된 할아버지와 내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할아버지가 납북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요시찰 대상이었죠. 연좌의

고통 때문에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85년 김근태씨 등과 ‘민청련’ 활동을 하다가 다시 수배됐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늦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모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족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격동의 역사를 헤쳐온 유기홍씨와 그의 가족은 이제 서로를 감싸안으며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화해의 행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 역사와의 화해를 위해 뛰고 있다. 민족차원의 화해가 없다면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 오원진 기자

## 철저한 텍스트 해석의 관점에서 본 이상문학



“1936년 이상이 건너간 길을 따라 저도 1996년 도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 손에는 문학사상사판 《이상전집》이 있었습니다. 이상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우리 문학사에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소설의 해석》  
펴낸 김성수씨

한국 근대문학에서 작가 이상만큼 문제적 인물은 없다. 그가 남긴 난해한 시며 비일상적인 생활을 고스란히 담은 소설, 거기다 비정상적인 여자관계에 폐결핵, 도쿄에서 죽은 일까지 덧붙이면 이상은 실존인물을 넘어서 하나의 문학적 상

징에 가까워진다.

문학평론가인 김성수씨(37)의 《이상소설의 해석》(태학사)은 이제까지 활발하게 나온 이상연구의 한 결절을 맺은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이상문학 연구사는 해방 전 최재서·김기림, 50년대 이어령·임종국, 80년대 김윤식·이승훈 등으로 이어지는 굵직한 흐름을 거쳐 90년대 이후에는 선배들의 연구가 가진 틈새를 메우는 동시에 오독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부 때 우연히 이상 시를 주제로 발표한 개인연이었습니다. 그러다 도쿄에 유학할 일이 생기면서 이상이란 존재에 바투 다가가게 됐죠.”

이 책은 그간 이상연구 중 잘못 읽은 부분을 바로잡고 작품의 내면에 가까운 해석을 내리는데 주력했다. 예컨대 <날개>의 마지막 부분,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라는 화자의 독백이 이뤄진 곳이 그간 알려진 바와 같이 미쯔코시백화점 옥상이 아니라 백화점 근처의 거리라고 주장한다. 또 첫장편 《12월 12일》, 출세작 <날개>, 마지막 작품 <중생기> 등과 함께 <지의 암실>을 중요하게 다룬 점 역시 눈에 띈다.

“이상문학의 매력은 그의 작품이 지닌 모호성과 난해함이 연구자나 일반독자로 하여금 지적인 도전의식을 일으킨다는 점과, 그의 작품이 리얼리즘 전통이 강한 우리 문학에서 보기 드문 내면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기다 시·소설·그림·디자인·건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작가에 대한 경외감도 있구요.”

그는 앞으로 이상문학을 주제로 창작된 작품을 통해 이상문학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고은의 《이상평전》을 잇는, 새로운 시각의 《이상평전》을 집필하는 일도 남았다. 이상이 죽은 지 60년이나 지났지만 연구자들에게 그의 문학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 김연수 기자